

고흥군 남해안권 초광역 드론 기반시설 구축 박차

전남·경남·부산 11개 기관과 무인 이동체 실증 인프라 조성 사업 내년까지 3년간 188억원 투입...드론 고도화 기반 구축 등 '착착'

고흥군이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드론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전남·경남·부산 등 11개 산학연 기관과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94억원과 지방비 60억원, 전남·경남·부산 테크노파크 34억원 등으로 사업비가 구성됐다. 이 사업은 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초광역 드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무인 이동체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미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3개 시·도는 각 지역의 무인 이동체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적조와 환경 상태를 감시하고, 양식장 점검, 불법 어업 감시 등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교차 실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남해안권의 해양 생태계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차년도 사업에서는 고도화 기반 구축이 진행됐다. 고흥드론센터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남해안권(전남·경남·부산) 각 지역의 무인 이동체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원활히 송·수신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료 수집, 분석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동 관제 차량과 장기제공 드론 등 장비를 구축하고 시·도 간 통합 관제·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고흥군은 이번 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향후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표준을 제시하



고흥군을 필두로 한 전남·경남·부산 11개 산학연 기관이 내년까지 초광역 드론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고흥드론센터에서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통합관제가 진행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남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을 연계해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흥군은 13만2231㎡(4만평) 규모 무인

항공 영농기술특화단지과 고흥드론센터, 고흥항공센터 등 항공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무인 이동체 실증 분야 핵심기술인 통합관제와 빅데이터 체계가 고흥드론센터 내

에 구축됐다"며 "초광역권 지역의 다양한 실증사업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어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읍 봉서리에 551억 규모 '복합주거단지' 들어선다

정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186세대 거주...2027년 완공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인 비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가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와 청년 등에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례군이 계획한 지역활력타운 '구례산에마을'은 구례읍 봉서리 일원 7만 70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64억 원을 포함해 총 551억 원이다. 군은 2027년 말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내 계획된 세대수는 86세대고, 기업체 기숙사까지 포함하면 186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외에도 국민체육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 등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져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에 들어설 '구례산에마을' 조감도.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위기 상황에 있지만 양수발전소와 오산 케이블카 유치 등 절호의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

며 "지역활력타운 유치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전기가 삼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20일까지 '스타기업' 3개사 모집

3년간 최대 9000만원 지원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스타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9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상담, 홈페이지 개설, 인증·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벌인다.

공고일 기준으로 여수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1% 이상,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보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전남대

크노파크에 우편 신청하고, 동시에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에도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열린 시장-공직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는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최종 스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스타기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여수시 맞춤형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상담을 제외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국가정원 1년 회원권 구매

협의회, 구매 운동 동참 결정 순천만국가정원 홍보도 앞장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1년 회원권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올해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의 홍보를 위해 1년 회원권 갖기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구매는 지난 4월 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1년 입장권 단체 구매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진행됐다. 65세 이상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에도 연간 입장권을 구매하여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선물하는 등 국가정원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순천시 읍면동 각 주민자치회는 지난해에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전 기간 입장권 갖기 릴레이에 참여하는 등 국가정원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이훈탁 순천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1년회원권 갖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순천시 제공>

원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새롭게 개장한 국가정원을 전국에 홍보하

고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출산 직원 승진 가산점·희망부서 배치

30일 이내 자녀 돌봄 특별 휴가도

고흥군이 출산 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출산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근무 성적평정(근평)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출산 자녀에 따라 1자녀 0.5점, 2자녀 0.7점, 3자녀 1.2점, 3자녀 이상 1.5점의 가산점을 준다. 군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은 우선해서 희망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다. 출산 직원에게는 30일 이내 자녀 돌봄 특별 휴가를 주고 복지 포인트(50만원)도 지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구 10만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공직사회부터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 영어특화 도서관 '광영도서관' 개관

시범 운영후 내달 3일 정상 운영

광양시가 6번째 시립도서관으로 영어특화 도서관 '광영도서관'을 개관했다. 광양시는 ▲중앙도서관(여가 취미) ▲중마도서관(여행) ▲희망도서관(미래 교육) ▲용강도서관(건강·치유) ▲금호도서관(예술) 등 도서관별 주제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영도서관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따라 국비 6억 2500만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 광

영어올림센터(광양시 광영로 74) 4-7층 리모델링해 연면적 1351㎡ 규모로 조성했다. 도서관 주요 시설엔 실감형 체험관, 어린이 자료실, 일반자료실, 교육실 등이 있고, 일반·어린이·영어 도서 등 1만 5000여권의 장서를 갖췄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엔 휴관한다. 광영도서관은 시범 운영한 후 6월3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치그린 한복 창작소'로 거듭날 보성군 북내면 '천연염색공예관' 염색동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한복 창작소 탈바꿈

정부 공모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보성군 북내면 천연염색공예관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창작소'로 거듭난다. 보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2024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복 문화 활성화와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을 통해 보성군 북내면에 있는 천연염색공예관은 앞으로 '가치그린(Green) 한복 창작소'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이다. 천연염색공예관은 숙박시설인 한옥동과 염색동, 야외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옥동에서는 한복 체험을 하고 대마·삼베 등 향토 자원 제품을 살 수 있다. 염색동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천연 염색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치그린 한복 창작소'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천연염색공예관의 기존 장점을 살리고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을 아우르는 융합형 공간이 될 예정이다. 오는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한복 문화 주간'에는 한복 패션쇼와 전통혼례식 무대가 된다. 이곳에서는 천연염색 규방 공예와 전통 자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또 한복 계승 교육과 초·중·고 한복 문화 교육, 전통한복 기획 전시, 한복 재활용 공모전 등이 펼쳐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며 "가치그린 한복 창작소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전통문화 인식을 높이고 한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